장흥 토요시장·해남 마산장 등

시골 장터 한우 인기

전문 식당가 형성…"믿을 수 있고 값싸"

국산 쇠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시골 한우 장터에 고객들이 몰리면서 축산 농가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문을 연 정남진 장흥토요시장내 4곳의 한우 판매장은 장흥에서 생산된 순수 혈통의 우량 한우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인기를 끌고 있다.

이곳에서는 토요일은 물론 평일에도 600g 1근 당 꽃등심 1만4천원, 안심·갈비 1만3천원, 양지·사태·목살은 1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현재 하루 최고 10마리까지 판매되고 있으며 토요일에는 질 좋고 값싼 쇠고기 구입을 위해 줄을 서야 하는 등 관광객 유인에도 한몫을 하고 있다.

전체 거주 가구가 10세대에 불과한 해남군 마산면 학의리 육일시는 한우전문 식당가로 변모했다.

수년 전부터 최고급 한우만을 판매하고 있는 육일시는 최근 1곳에 불과했던 식육점이 5곳으로 늘어났다.

특히 교통이 편리해 소를 도축하는 금요일에는 산이와 마산 면민들은 물론 해남읍 주민과 목포 시민들도 몰리고 있으며 해남읍에 있는 일부 식당도 이곳으로 옮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해남군은 한우 사육농가와 연계하는 등 육일시를 정읍 산외마을과 같은 관광 명소로 육성할 방침이다.

오는 11월이면 강진군 군동면에도 한우 먹거리 촌이 들어선다.

강진 한우 먹거리 촌은 군동면 공설운동장 인근 6천690㎡에 2층 건물, 2동 규모로 식육점 6개소와 식당 4개소가 들어선다.

이곳에서는 강진산 암소 한우를 시중 가격보다 최고 25% 인하해 판매하게 된다.

강진군은 냉동고 등 내부 시설 비용 50%를 지원, 한우 먹거리촌 활성화에 앞장설 방침이다.

/지방종합

국산 쇠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군지역 한우 판매장이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고객들로 붐비고 있는 장흥 정남진토요시장 내 한우 판매장. /장흥=김용기기자 kykim@

장흥군 "'지렁이 청소부' 덕에 환경상 받았어요"

'음식물 쓰레기 감량' 우수군

장흥군이 '음식물 쓰레기 감량 우수군'에 선정됐다.

장흥군은 환경부가 최근 주관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홍보 및 자원화시설 운영개선' 공모에서 100점 만점에 81점을 얻어 전국 우수 자치단체로 뽑혔다.

장흥군은 2년 전부터 지렁이를 가정에 보급해 음식물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성공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를 지렁이가 직접 분해해 퇴비화 시키는 분변토로 채소나 방울토마토 등을 재배, 농약과 비료 등이 전혀 섞이지 않은 친환경 웰빙 채소를 수확하고 있다.

또 지렁이 대량보급을 위한 사육장 조성과 지렁이 생태체험을 위한 주말농장 및 생태학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렁이 10여 마리는 500g의 음식물쓰레기를 3일 만에 해치운다"며 "지렁이가 귀중한 생물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더욱 적극적인 활용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영암군-농촌공사 '땅 싸움'

대불산단 인근 1만㎡ 소유권 놓고 법정 분쟁

영암 대불 국가산업단지 인근 1만㎡의 소유권을 둘러싼 한국농촌공사와 영암군간 갈등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농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은 지난달 영암군과 국가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등에 행정처분취소청구 및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영산강사업단은 "이 땅은 지난 82년 영산강 2지구 공유수면 매립으로 생겼으며, 절차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준공 인가 신청중"이라며 "영암군이 지난 4월 이땅을 건교부 소관 국유지로 등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암군은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 1994년 국도 2호선 확장 포장 공사를 한 뒤 조성된 유휴지"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영암군은 최근 농촌공사에 임대료를 내고 이땅을 사용중인 건설장비 업체에 퇴거토록 통보해 놓은 상태다.

현행법상 농림부 소유 국유지는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게 되지만, 건교부 국유지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가 관리하게 돼 있다. /송기동기자 song@

광양만권경제자유청 내년 예산 44억 요청

조합회의 심의·의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조합장 김재무)는 4일 경제자유구역청 2층 상황실에서 제 20회 임시회를 열고 규정개정안 4건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2008년도 전남·경남 도비 요구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내년도 전남·경남 도비부담 관련 예산요구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4억원이 증액된 44억원이다. 도비 분담금 예산은 개발구역 면적비율에 따라 양도에 요구하게 되며,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규정 및 예산안은 전남도보와 경남도보에 각각 공고(공포) 한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선박 안전점검 해드립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완도군지부 무료 봉사

선박안전기술공단 완도군지부(지부장 김동철)가 '대어민 합동 안전점검 이동봉사반'을 운영하는 등 찾아가는 맞춤형 무상봉사를 펼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선반안전 기술공단 완도군지부는 지난 3일 완도읍 대신리 어촌계를 찾아 선박 5척의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주민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과 오는 8일 치러지는 해기사 시험에 대비, 소형선박 조종사 문제집을 제작·배부하고 강의를 했다.〈사진〉

어민들은 그동안 검사소가 위치한 완도항까지 원거리 항해를 해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왔다.

한편 완도·해남군을 관할하는 선박안전 기술공단 완도지부는 2t이상 선박 2천267척, 2t미만 8천500척, 50t이상 선박 23척(화물선), 카페리 여객선 80t 15척 등을 관리하고 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화순군청 양주형씨 총리상

양주형 화순군청 건축민원담당이 '2007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양 담당은 지난해 8월부터 종합민원실에서 근무하며 One-Stop 체제 구축으로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시켰다. /화순=조성수기자 css@